

일본 지역재생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해외 출장 보고

유학열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2행 비움>

I. 개요

<1행 비움>

1. 조사 개요

1) 목적

- 일본 지방소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재생사업의 프로세스, 주체간의 역할, 재생기법 등의 심층 조사
- 내각부(內閣府) 내의 지역재생본부와 지역재생사업의 추진되고 있는 지역과의 연대 및 지원시스템 등을 파악

2) 개요

- 출장기간 : 2008. 8. 25(월) ~ 8. 30(토)
- 방문국가 : 1개국 (일본)
 - 일본 : 구마모토현 아라오시,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오이타현 분고다카타시
- 방문기관 : 아라오시 시청, 분고다카타시 시청
- 출장자 : 유학열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행 비움>

2. 조사 내용

- 구마모토현 아라오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재생사업의 실태 및 특징
- 오이타현 분고다카타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재생사업의 실태 및 특징

1) 방문지역

지역	특징 및 방문목적
구마모토현 아라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마모토현 북서쪽에 위치한 지방소도시 ○ 지역자원을 활용한 內發的 지역발전 추구 ○ 지역재생사업의 현장 방문 및 관련 공무원과 인터뷰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마모토현의 중핵도시(현청소재지) ○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의 선진사례 지역 ○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의 현장 견학
오이타현 분고다카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약 25,000명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지방소도시 ○ 전통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재생 성공사례 ○ 지역재생사업의 현장 방문 및 관련 공무원과 인터뷰

2) 방문기관

기관명	방문목적
아라오시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라오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재생사업의 내용 및 특징 등을 조사, 관련자료 수집 ○ 지역재생사업의 현장 견학 및 담당자와의 인터뷰
분고다카타시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고다카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재생사업의 추진과정, 사업내용, 지원책 등에 대해 조사 ○ 지역재생사업의 현장 견학 및 지역상인들과 인터뷰

<2행 비움>

II. 방문지 주요조사 및 활동결과

<1행 비움>

1. 구마모토현 아라오시

<1행 비움>

1) 일반 현황

- 아라오시는 일본 큐슈(九州)지방의 구마모토현 북서쪽에 위치한 전형적인 지방소도시이다. 2007년 12월 현재 인구는 약 5만 6천명이며 시 전체 면적은 57.1km²이다. 상공업, 농수산업이 주요 산업이며 재정력지수는 0.44이다

<1행 비움>

2) 재생사업의 추진 배경 및 경위

아라오시는 예부터 일본 유수의 탄광지역으로 광대한 구릉지에 탄광촌이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1997년부터 제법 규모가 큰 탄광들이 폐광됨에 따라 탄광촌이 쇠퇴하면서 새로운 택지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산업의 정체가 계속되는 등 지역 전체의 활기가 없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산업 부활을 목표로 ‘食’을 중심으로 한 지역재생을 추진하고자 2002년에 시의 산업진흥부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팀을 결성하여 지역자원조사, 관계단체 인터뷰조사, 선진지 시찰 등을 통해 지역의 정보, 인재, 기술, 자금을 총 결집하여 内發형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구상하게 이르렀다.

그 후 2004년 6월(1차 인정), 2005년 7월(2차 인정)에 내각부로부터 지역재생 계획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아라오시의 지역재생 담당은 건설경제부 농촌수산물과에서 맡고 있다(직원 3명, 2008년 8월 현재).

<1행 비움>

3) 재생사업의 추진 목적

아라오시의 지역재생사업의 목적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생산품의 직매 및 지역특산물 개발 등을 통해 지역 내 자금(구매력) 순환 시스템 즉, 内發형 지역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産學住協働’의 공간을 창출, ② 연대조직(기업조합)을 설립하여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 ③ 지속적인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④ 큰 자본이 필요치 않으며 누구라도 가능한 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있다.

<1행 비움>

4) 재생사업의 추진 내용

(1) 지역공생형 연대거점 구축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조직이 중심이 되어 농산물직판장 기능을 겸한 지역의 특색이 살아 있는 거점시설을 아라오시 내 3곳에 개설하였다. 이러한 지역공생형 거점시설을 ‘거리의 연구실’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판매수익의 일부는 지역재생(활성화)

사업에 쓰이고 있다.

【‘거리의 연구실’ 1호 : 青研(아오켄)】

아라오시 중앙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한 거점시설로 지역 농가에서 출하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산물직판장 기능을 하며 최근에는 시설 내에 와인양조실(winery)을 설치하여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이 점포로부터 약 1Km 부근에 입지한 대형 쇼핑센터의 영향으로 생선(生鮮) 식품 가게들이 거의 대부분 문을 닫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자동차를 운전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노약자들의 생선식품 구입이 쉽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徒歩圏 점포를 구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 운영주체 : 기업조합「中央青研企劃」
- 조합원수 : 5명
- 설립일 : 2005년 11월
- 자본금 : 50만 엔(약 500만원)
- 사업내용 : 농산물직판장 운영, 과실주 제조 판매, 지역활성화 기획
- 1일 매출액 : 약 10만 엔(약 100만원)



〈사진1〉 거리 연구실

【‘거리의 연구실’ 2호 : ありあけの里(아리아케노사토)】

사용되고 있지 않았던 농협의 쌀 보관 창고를 활용한 거점시설로서, 농산물 및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조합원의 평균연령이 71세로 고령자의 고용 창출 및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운영주체 : ありあけの里조합
- 조합원수 : 35명
- 설립일 : 2006년 3월

- 사업내용 : 농수산물직판장 운영, 고령자 교류 이벤트
- 1일 매출액 : 약 10만 엔(약 100만원)

【 ‘거리의 연구실’ 3호 : にんじん畑(닌진바타케)】

아라오역 부근 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한 거점시설로서, 특히 고령자의 취향에 맞는 가공식품(반찬류, 도시락)을 제조, 판매하며 계절에 따라 다양한 이벤트도 기획, 추진하고 있다.

- 운영주체 : 기업조합 「にんじん畑」
- 조합원수 : 5명
- 설립일 : 2006년 5월
- 사업내용 : 농수산물직판장 운영, 가공식품 제조 판매

(2) 커뮤니티레스토랑 조성

약 20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민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시설인 커뮤니티레스토랑을 2007년 4월에 개설하였다. 운영은 지역 주민(주부) 4명이 하고 있으며 지역 내 농가에서 재배 된 제철야채를 주재료로 사용하면서 향토요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설은 수익성 보다는 지역주민간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1일 평균 약 35,000엔(약 350,000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200백만 엔으로 아라오시가 1/2, 지역주민이 1/2 부담하였다.



〈사진2〉 커뮤니티레스토랑

(3) 지역재생 프로젝트 상품 개발

후생노동성이 지원하는 지역고용창조촉진사업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회를 발족 지역 특산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인 특산품으로서는 지역

브랜드 소주, 포도주, 주스, 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상품들은 지역주민, 행정공무원, 지역농가, 전문고등학교 학생, 지역매니저 등 다양한 지역주체의 협력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사진3〉 지역재생 프로젝트 상품

5) 재생사업을 위한 지원책

(1) 지역재생매니저사업

지역재생매니저사업이란 외부의 지역개발(계획) 전문가를 3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고용된 전문가는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주민, 공무원 등과 함께 지역재생(활성화)에 관한 활동을 한다.

- 지원내용 : 전문가(지역재생매니저)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 지급
- 연간 1,500만 엔(국고 2/3, 시비 1/3), 3년간 보조

(2) 지역고용창조촉진사업

고용기회가 적은 지역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 하는 지역(자발고용창조지역)이 제안한 고용대책사업 가운데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것을 선정한 후 사업을 위탁하는 제도.

- 자발고용창조지역이란 ① 고용기회가 적은 지역(과거 3년간 또는 과거 1년간 유효구인배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② 자발적으로 지역의 고용창출에 노력하는 지역

- 연간 2,000만 엔(국고 100%), 3년간 보조
- 보조금은 지역 특산품 개발(소주, 포도주, 주스 등)을 위한 인건비 및 연구회 운영·관리비로 충당

6) 성과

- 새로운 지역고용기회의 창출
 - 20여개의 점포가 새롭게 창업
 - 200여명 신규 고용 창출
 - 특히 노인일자리 창출
- 지역커뮤니티활성화에 큰 도움
- 고령자 및 노약자를 배려한 생활편의 시설 구축
- 새롭고 다양한 지역 특산품 개발에 따른 지역 지명도 향상
- 농수산물직판장 및 지역특산품 판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연간 판매 수익 : 5,800만 엔(약 6억 원)

2. 오이타현 분고다카타시

<1행 비움>

1) 일반 현황

분고다카타시는 일본 규슈지방 오이타현의 북동부에 위치하며 총면적 207 km², 인구 약 25,000명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일본의 지방소도시이다. 2005년 3월 주변의 1市 2町이 합병하여 현재의 분고다카타시가 탄생되었다.

<1행 비움>

2) 재생사업의 추진 배경 및 경위

2008년 현재 분고다카타시의 인구는 약 2만6천 명으로 지방 소도시에 불과하지만 에도(江戸)시대에서부터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쇼와(昭和)30년대까지는 주변지역의 상권을 장악할 정도로 오이타현 북부지역 중심상업도시로서 번성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교통사정의 변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및 교외에 대형 상점이 입지하고, 또한 기존 상점주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접한 우사시(宇佐市), 나카쓰시(中津市)로 상업 集積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근년 분고다카타시의 기존 상점가는 쇠퇴해지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라 온 고향이기도 한 중심시가지의 상점가를 어떻게든 다시 살리고 싶다’라는 지역주민들의 강한의지를 바탕으로 상점가, 상공회의소, 지역유지 등이 중심이 되어 상점가의 부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부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기존의 중심상점가가 가지고 있던 옛 정취 및 개성을 보전하고 되살리는데 두었다. 즉, 전국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이 지역만의 個性(얼굴)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 및 전통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옛날에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날을 기준으로 볼 때 바로 전 과거라 할 수 있는 30~40년 전의 시대에도 역시 역사와 전통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깨달아 “쇼와(昭和)시대¹⁾”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지역은 과거 상업도시로서 번영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역사를 계승해 온 상인들이 오늘날도 상점가에 살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역사를 재음미하면서 계승해 내려온 쇼와의 상인기질도 재생하고자 하는 의미에서도 본 재생사업의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가장 그리워하며 애절한 향수를 간직하고 있는 시대 즉, 상점가가 번성하였던 마지막 시대인 “쇼와 30년대”를 지역재생의 테마로서 가장 어울릴 것이라는 지역주민들의 뜻과 의지가 분고다카다시 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되었다.

분고다카다시의 재생사업은 2005년 7월 지역재생계획과 2007년 5월 중심시가지 활성화계획이 내각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3) 재생사업의 추진 목적

이 시의 재생사업은 쇼와(昭和) 30년대(1950년대)시대의 거리, 시설, 역사 및 경관을 정비, 복원하는 즉, 「쇼와의 거리 만들기(昭和の町づくり)」가 근본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쇼와의 거리 만들기(昭和の町づくり)」란 침체되고 쇠퇴된 옛 중심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1950년대의 풍취를 테마로 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 재생을 설정하였다.

1) 쇼와시대는 일본의 시대 구분의 하나이며, 쇼와 천황의 재위 기간인 1926년 12월 25일부터 1989년 1월 7일까지를 말함

- ① 쇼와의 建築재생 : 쇼와의 정취를 가진 가로 경관 만들기
- ② 쇼와의 歴史재생 : 마을과 점포의 옛 이야기 만들기
- ③ 쇼와의 商品재생 : 점포의 독자적인 상품 및 특산품 만들기
- ④ 쇼와의 商人재생 : 방문객과의 상인들과의 정감 있는 교류 만들기

이러한 「쇼와의 거리 만들기(昭和の町づくり)」 사업은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매력 있는 상점가를 창조하여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상점가로서의 기능도 충실히 하여 지역주민들도 찾아오게끔 하는 전략도 숨어 있다. 즉 상업과 관광, 두 가지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의 재생을 도모하고자 한다.

2004년에 이 지역을 찾아온 관광객 수는 약 110만 명이었으나 이 재생사업을 통해 2014년에는 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며 관광객의 소비액도 2004년의 약 18억 엔에서 2014년에는 64억 엔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4) 재생사업의 내용

(1) 쇼와의 거리 정비 사업

○ 쇼와의 건축재생

- 사업명 : 「오이타현지역상업매력향상종합지원사업」, 「오이타현빛나는지역창출사업(명소육성사업)」
- 실시주체 : 분고다카타시
- 실시기간 : 2001년~2005년
- 실시대상 : 재래시장 내 34점포
- 사업내용 : 전통적 건축양식 복원, 간판 정비 등



〈사진4〉 쇼와시대 風으로 간판 정비

○ 쇼와의 역사재생

- 사업명 : 「분고다카타시점포전시시설정비사업」
- 실시주체 : 분고다카타시상공회의소
- 실시기간 : 2001년~2005년
- 실시대상 : 재래시장 내 26점포
- 사업내용 : 옛 도구 및 옛 생활용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정비



〈사진5〉 쇼와시대 생활상 전시

○ 쇼와의 상품재생

- 실시주체 : 재래시장 내 각 점포
- 실시기간 : 2001년~현재
- 사업내용 : 각각의 점포의 독자적인 상품 및 특산품 만들기



〈사진6〉 쇼와시대의 상품 전시

○ 쇼와의 상인재생

- 실시주체 : 재래시장 내 각 점포
- 실시기간 : 2001년~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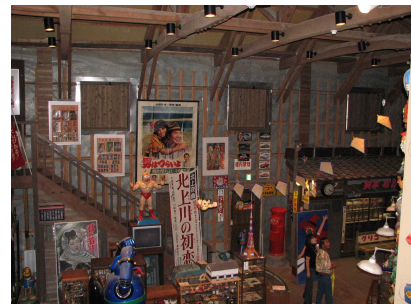
- 사업내용 : 방문객과 상안들과의 정감 있는 교류 형성

(2) 쇼와의 거점시설 활용 및 정비

오늘날 다행히도 분고다카다시의 중심상점가(재래시장)에는 1950, 60년대의 전통적인 건축물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분고다카다시의 지역재생사업의 핵심인 쇼와의 거리를 창출하는데 있어 그 무엇보다 큰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집객시설, 교류시설로서의 정비, 활용을 검토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중심상점가에 인접해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개인소유의 농업창고를 ‘쇼와로망장(昭和ロマン藏)’으로 정비하여 그 내부에 ‘장난감 박물관’, ‘쇼와의 그림동화책 미술관’을 개설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의 食材만을 사용하는 ‘향토레스토랑’ 및 ‘쇼와의 생활체험관’ 등을 개설하는 등 쇼와의 거점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심상점가에 남아 있는 옛 은행 건축물도 정비, 활용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건축물의 소유가 민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비 수법에 있어서는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다음에 설명하는 ‘분고다카다시 관광지역 만들기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사진7〉 쇼와 로망장

(3) 쇼와의 거리 주변 환경 정비

쇼와의 거리를 더욱 더 매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전통적인 건축물, 거리의 재현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환경정비도 빼 놓을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주차장, 공중화장실, 안내판 등도 쇼와의 거리 이미지에 맞게끔 정비하였

다.

또한 중심상점가를 둘러싸고 흐르는 하천도 정비하여 한층 더 쇼와의 거리 매력을 향상시켰다.

5) 재생사업 성과

분고다카타시의 지역재생사업의 성과로서는 우선 중심상점가(쇼와의 거리)에 찾아오는 방문객(관광객, 지역주민)이 급증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업 당초의 목표치를 보면 2014년에 연간 200만 명을 설정해 놓았지만 그 목표는 이미 2007년에 달성하였다(약 360만 명).

또한 2004년에 분고다카타시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심상점가의 연간판매액이 2004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2001년부터 시작된 지역재생사업이 실제적으로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중심상점가 연간판매액 : 521백만 엔(2002년) ⇒ 615백만 엔(2004년)

게다가 중심상점가의 점포수도 요식업을 중심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더불어 종업원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중심상점가 점포수 : 132점포(2002년) ⇒ 136점포(2004년)

○ 중심상점가 종업원수 : 587명(2002년) ⇒ 598명(2004년)

<2행 비움>

Ⅲ. 시사점 및 정책제언

<1행 비움>

1. 구마모토현 아라오시에서 얻은 시사점

- 지역매니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시사
 - 기본적으로 지역매니저는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지역주민, 행정 등의 다양한 지역주체들의 의견을 수렴
 -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고 실천 가능한 사업을 도출
 - 지역매니저는 외부자로서 지역 내 주체들이 인식하지 못한 지역의 가치, 개성, 자원 등을 발견할 수 있음
- 사업 주체가 재정적, 인적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점포 등을 창

업함으로써 실패의 확률을 낮춤

- 시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보조율이 높은 지원책 및 규제완화조치에 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産學住協働’에 의한 협동형 지역재생(활성화) 추진

- 대규모 시설 및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지역에 잠재하고 있던 자원들을 활용하면서 지역밀착형 사회적 기업 및 커뮤니티비즈니스(communitary business)를 창출

<1행 비움>

2. 오이타현 분고다카타시에서 얻은 시사점

- 다양한 세대가 향유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에 특화시킨 지역재생
- 현 시대의 3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근대의 역사와 문화의 보존, 재현에 착목하였다는 점에서 가족단위의 방문객(관광객)을 자연스럽게 유치할 수 있었음

- 최근 일본의 전국적인 붐의 하나인 ‘쇼와의 붐2)’과 시대적 일치

-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적 건축물 및 가로 등 지역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새로운 지역 가치와 개성을 창출

- 단순한 관광시설의 조성이 아닌, 지역주민의 생활문화를 철저히 반영시킨 ‘생기 넘치는 상점가’ 복원

- 지역주민, 상공회의소, 행정기관 및 외부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동체제 下의 ‘協同형 지역만들기’ 구현

- 市 독자적인 보조금제도 창설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 지역금융기관(신용금고)의 지원

- 지역재생사업에 관련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담보 융자 실시

<다음 페이지>

2) ‘쇼와의 붐’이란, 쇼와시대의 전반기(1930대~60년)의 문화와 생활양식, 전통 등에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의미

부록1. 주요 조사일정

월 일	시 간	세 부 내 용	참 고
8월 25일	09:55 12:10 15:00	인천공항 출발 일본 아키타공항 도착 아키타현립대학 방문, 전문가와 의견교환	KE 769편
8월 26일	09:30 14:00 19:00	아키타현청 방문, 지역재생 관련자료 입수 아키타현다이센시, 지역재생 자료 입수 연구협력자(센가유타로교수) 면담	소도시 재생
8월 27일	07:15 10:50 16:00	아키타공항출발 ⇒ 동경 하네다공항 동경 하네다공항 ⇒ 후쿠오카공항 도착 구마모토시 중심시가지 현지 견학	항공편 항공편 중심시가지
8월 28일	09:30 15:00	구마모토현 아라오시 현지 조사 담당자 : 우에조노, 0968-63-1204 구마모토현 구로가와 현지 조사 담당 : 구로가와 협동조합, 0967-44-0076	소도시 재생 농촌마을 재생
8월 29일	09:30 15:00	오이타현 분고다카다시 현지 조사 담당자 : 후지시게, 0978-22-3100 오이타현 유후인정 현지 견학	소도시 재생 소도시 재생
8월 30일	오전 15:30 16:55	후쿠오카 중심시가지 현지 견학 후쿠오카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	중심시가지 KE790

<참고문헌>

논문 : 저자명, 발행년도, "제목(영문은 이탤릭체)".

1. 권오혁·서충원, 2002 「중소도시의 부동산 개발과 도심지 재생 전략 -일본 나가하마시의 쿠로가베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제8호 한국도시연구소
2. 김승희, 2008 「일본의 지방재생전략」 강원발전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제도 도입 방안 연구」
4. 박종철·이혁주·김항집, 2001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유형에 관한 연구 -35개 시정촌의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을 중심으로-한국지리개발학회지 제13권 제2호
5. 地方都市研究會, 2004 「中心市街地再生と持續可能なまちづくり」, 學芸出版社
6. 內閣府地域再生事業推進室, 2007 「地域再生のために」
7. 內閣府構造改革特區推進室, 地域再生推進室, 2007 「特區・地域再生成果事例集」
8. 森野美德, 2007 「都市再生の到達点と今後の課題」, SHINTOSHI Vol. 61